



산자부, 2006년 수출입 전망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주요 수출산업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3180억불, 수입은 13.0% 증가한 2950억불, 무역수지는 작년 수준인 230억불의 흑자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4년 연속 두 자릿수수출입 증가 및 무역규모 6130억불 달성,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산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IMF 등 세계 관련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는 과거 10년의 세계경제성장률(3.8%)보다 다소 높은 수준(4.3%)의 성장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세계상품무역량 증가율도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FTA 체결 등을 통한 지역주의 확산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등 4대 수출산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등의 설비증설로 세계적인 공급증가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초소재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산자부, 2010년까지 'e-러닝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산업자원부는 최근 정부가 'e-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e-러닝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e-러닝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 부처 간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e-러닝 경쟁력 강화와 e-러닝 확산 및 수요창출이라는 2

대 전략과 6대 정책방향,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글로벌 지식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화 및 마케팅지원과 컨설팅·창업·투자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클리닉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기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연계, 보급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은 높은 교육열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어 e-러닝산업의 최적지"라며 "산·학·관 연계의 산업기반 조성을 토대로, 표준화·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면 e-러닝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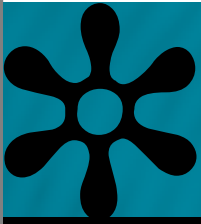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e-러닝 시장 매출액은 2003년 1조 770억원에서 지난해 20.6% 증가한 1조 2984억원에 달했으며, 영국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발표한 국가별 e-러닝 준비도에 따르면 한국은 스웨덴, 캐나다, 미국, 핀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정통부, IT 중소·벤처 체계적 지원 위한 로드맵 만든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로드맵인 'IT 스머프(SMBERP) 2010'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창업·퇴출은 물론이고 벤처 문화, 대기업 납품, 정부 정책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IT 중소·벤처기업 문화 ▲대기업과의 관계(납품 및 하도급) ▲자본과 노동 기능 ▲창업과 퇴출 ▲기술력 등 경쟁력 ▲정부의 역할 등 크게 6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IT 중소·벤처기업 문화의 경우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분식회계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관계는 IT 중소·벤처기업들이 하도급 관계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IT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과 노동의 역할로서 정통부 펀드와 인력양성의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로드맵에는 이들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28개의 사업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정통부 나승식 IT중소·벤처종합대책추진반장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IT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로드맵은 정부의 IT 중소기업·벤처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개척요원 양성사업 수출성과 위주로 전환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해외시장개척 성과제고에 초점을 맞춰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턴사원 위주로 선발하고 파견 규모 또한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개척요원들을 통해 총 2억 1천만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으며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4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인력이 급증하면서 개척요원별 1인당 평균 수출 비율이 낮고 해외에서의 관리가 곤란해지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은 실업대책보다는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 있는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위주 파견 ▲파견인원 축소 및 기간 확대 ▲신흥 및 틈새시장 개척 주력 ▲성과연계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매년 400개 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개척요원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유도를 사업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금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오는 3월에 파견자를 최종 선발하여 5월부터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신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가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돼 실제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개발제품 구매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입찰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중기청 판로지원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업종별 조합 중심의 소수 중소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 이후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기업은행, 올해 중소기업 자금공급 대폭 확대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창복)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대폭 확대, 기초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중소기업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산은은 올해 중소기업 자금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한 6조원으로 책정하고 이중 3조 7천억원은 금리와 대출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별자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 기술사업화 기업 투자제도를 도입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용 특별시설자금 1천억원을 책정해 별도의 담보 없이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펀드 1조원을 추가로 책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컨설팅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행장 강권석)도 올해 중소기업에 총 23조원을 공급하

겠다고 밝혔다. 신규공급과 대출연장 등을 포함한 총 공급액으로 중소기업 시설 투자자금(4조 9천억원),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자금(3조 3천억원),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관련 자금(3조 3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산단공, e-클러스터 통한 기업민원카드제 도입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철두)은 산학연 통합정보망(www.e-cluster.net)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요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민원카드제'를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민원카드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고유 민원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의 발급번호를 e-클러스터 사이트에 입력하면, 이후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또 해당 민원이 완료되면 곧바로 민원인에게 문자(SMS) 서비스로 결과가 통보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입주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단지의 산단공 사무소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그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단공은 우선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입주관련 민원에 대해 기업민원카드제를 실시한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두 이사장은 "이번 기업민원카드제의 도입은 일분일초가 소중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2006년 한 해 동안 입주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중소기업자금 적극 지원

부산광역시청(시장 허남식)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계획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으로 1500억원, 중소기업우전자금으로

3000억원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자금별로 위탁기관을 분리운영하며,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기계구입자금 등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벤처기업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 각각 운영토록 했다. 또 추천 및 대출서류 등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최소한의 서류로 추천대상 여부만 확인해 은행에서 대출심사토록 하는 등 자금 추천제도를 대폭 간소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3106) 및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51-600-1712)로 문의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및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bsc.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 개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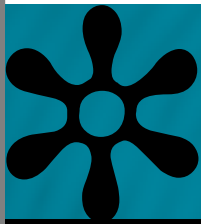
①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정부지원제도 및 입찰정보, 신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의 공유와 회원사 PR, 사업제안 등 회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합니다.

② 여성기업 우수기술제품 포털 사이트 오픈

여성 기업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수 신제품을 발굴하여 대기업의 국내외 유통망을 이용해 판로개척을 연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여성기업의 우수기술과 유망제품 포털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 **등록기간:** 연중 수시
- **등록방법:** 온라인(www.kowwa.or.kr)으로 무료 등록
- **문의처:** 한국여성벤처협회 박희용 팀장전화 02-6009-8505,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wwa@kowwa.or.kr



2006년 창조적 여성리더포럼 수요현황 설문조사 실시

2006년도 창조적 여성리더포럼(여성벤처CEO포럼)을 참가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사업계획수립 등에 있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 2006년 1월 5(목)~1월 20(금)
- 조사내용 : 2006년도 포럼 추진방향, 수요현황 등
- 문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재남 팀장/전화 02-6009-8504,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 참조

vd scrap



▲2006년 1월 4일 전자신문 5면
IT코리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50인' 컴퓨팅 분야에 협회 조현정 회장, 백종진 수석부회장, 안철수 前 부회장 등을 선정한 기사.



◀ 2006년 1월 9일 서울경제 A18면
"벤처기업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협회 조현정 회장의 인터뷰 기사.

▼2006년 1월 10일 전자신문 16면, 디지털타임스 15면
과학기술부와 산업은행이 올해 중기·벤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도한 기사.

